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發明思想普及運動의 필요성이 착상되기 시작한 것은 약 63年前인 1924~1928年代라고 볼 수 있다.

日本侵略이 가져다준 怨恨이 날로 濃縮되어 1919年 3月 1日 마침내 萬歲運動으로 불붙기 시작하자 日本人들의 政治彈壓은 더욱 가혹해가고 있었을 때 뜻있는 人士들은 우리民族이 살아나갈 길은 科學知識의 啓蒙과 發明思想을 鼓吹시키는 일만이 生産性있는 길로 나서는 일이라 믿어졌기 때문이다.

民族의인 科學知識普及으로 命脈을 이끌고 나아가서는 産業發展에 寄與하기 위한 國民的인 이 運動은 1928年 12월 7日 高麗發明協會의 發起總會를 갖기에 이르러 하나의 民族運動色彩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 이 사실을 보도한 1928年 12월 9일자 東亞日報 기사를 참고자료로 옮겨 볼 수 있다.

「현재 朝鮮人 社會로서 發明家를

위하여 科學을 근거로 한 合理的의 指導機關이 필요함을 느낀바있어 얼마전부터 有志 志士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 오든바 지난 7일 오후 일곱시에 京城 시내 慶雲洞 朝鮮物産獎勵會館 안에서 高麗發明協會 發起會를 열고 吳華英씨 사회로 의사를 진행한바 금일 朝鮮人本意의 發明家를 위한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니 만큼 일반의 흥미를 끌을 것은 물론이며 모든 發明家에 대한 기초지식을 지도할만한 기관일 것이다.

준비원이 提請한 規約을 통과하고 밤 열시경에 무사 폐회한바 發起人은 吳華英씨외에 20人이오, 創立總會準備委員으로 8인을 선거하였다더라」

그러니까 高麗發明協會가 정식으로 깃발을 올린것은 1928年 12월 21일. 朝鮮日報社 2층회의실에서 朝鮮物産獎勵會 明濟世씨 사회로 막이 열려서 시작됐다고 하겠다.

점차 활기를 더우기 시작한 高麗發明協會는 大衆啓蒙事業을 시작, 1929年 1月 25日 天道敎記念館에서 宣傳大講演會를 열어 크게 관심을 끌은 일이 있다.

당시의 演題와 演士는 다음과 같았다.

- ◎ 發明의 偉力(劉斗燦)
- ◎ 未定(趙炳玉)
- ◎ 發明의 曙光(李万球)

이協會는 發明思想普及運動으로 파고들면서 1930年 3월 21일 益善洞에 있는 회관에서 2週年記念式을 갖고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發明家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손대기로 했으나 그후 財政難으로해서 스스로 그 존재가 사라진 것 같다.

실상 高麗發明協會가 발족하기에 앞서 科學圖書, 雜誌出版과 特許手續指導相談등을 목적으로 1924年 8月 朴吉龍, 尹城淳, 裴相彥, 朴璋烈, 崔穀昌, 許楨煥씨들이 京城시

내 長沙洞 83, 東洋染織株式會社 안에서 發明學會를 發起하고 그해 10月 1日 같은 장소에서 成漢錫씨 社會로 創立總會를 열어 初代理事長에 朴吉龍(建築設計家), 專務理事에 金容瓊(窯業研究家) 劉鏞(工學士)씨들로 陣容을 갖추었다.

깊은 뜻을 품었던 이들 團體들은 모두가 그 당시의 社會的 環境의 與件과 財政的 與件으로 해서 출발창조의 뜻을 마음껏 발휘하기엔 매우

本會 創立

1928年 12月 7日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수 없었다.

韓國사람의 科學發展내지는 産業技術의 底力을 이룩해야겠다는 큰 뜻을 發明學會는 그나마 주머니돈을 털어 창립된지 얼마못가 9年이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오던중 1933年 6月쯤에야 2代理事長에 李仁(辯護士·辨理士)씨가 들어서서부터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宋鎮禹, 金性洙, 方應模, 呂運亨, 李鍾麟, 朴興植, 金知泰씨를 비롯해서 뜻있는 人士들이 支援하고 나섰다.

發明獎勵의 緊要性을 大衆啓蒙運動으로 作用시켜보려는 事業은 發明學會가 中心을 이루는 朝鮮科學知識普及會(會長 尹致堯, 副會長 李仁, 顧問 金性洙, 呂運亨)가 制定한 「科學데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날을 택한 것은 그 당시의 政治的인 여건이 朝鮮사람의 科學者나 發明家의 우월성을 내세울수 없

어 할 수 없이 「차알즈·다아윈」(1809~1882)이 사망한 4월 19일일을
追慕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總督府施政은 朝鮮사람들이
몰리는 일체의 集會도 용인하려
하지 않았으며 要視察人物의 「리스
트」를 작성해 놓고 행동감시를 펴
오던 시절이다.

모든 團體活動을 억제당하는 때
라 부득이 非政治的活動으로 피해
나가는 수단은 자연 物產獎勵運動,

道를 모색해 보았다 하겠다.

發明家들을 獎勵하고 特許法과
學術的解釋을 위주로 첫걸음의 發
明家나 쓰내기 發明家들을 상대로
하는 동안 매일 5~6명, 적어도 3
명이 지나름대로의 發明을 들고오
는 이들을 상대로 하려면 별수없이
發明協會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때 動機를 두고 있었다.

그렇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 相
談을 對해오는 發明家들의 80%는

識普及會(會長 元翹常)가 200여명
의 會員組織을 맡아, 8.15때까지
이어오다가 繼承없이 흩어졌다.

發明的인 思考에서 우리나라는 創
意性的인 昂揚과 發明的인 獎勵·保護
에 뒤따라 나서야할 實用化(企業
化)를 모색하며 科學技術의 振興을
목적으로 1947年 12月 27日 軍政廳
商務部를 「팩트라운드」로 하는 官
民共同體의 朝鮮發明獎勵會(理事長
吳楨洙商務部長)創立을 보았다.

모처럼의 發明獎勵團體가 發足된
지 1年이 못되어 6.25動亂을 피해
잠시 釜山으로 옮겨서 再收拾의 과
정을 겪으면서 1953年 4月 17~18
日 發明品展示會와 優良商標展示會
를 갖는 등 熱意를 보이다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온 協會는 전면적인
改革을 보았지만 순수한 發明家들
손으로 넘겨야할 형편에 놓이게 되
자 看板의 名儀마저 고쳐야만 했다.

難航의 길은 다시 시발점을 이루
어 1956年 9月 10日 臨時總會를 거
쳐 韓國發明協會(會長 周利會)로
改稱, 약 9년동안 甚刻한 混亂期를
겪어내려오다가 5.16과 더불어 商
工部長官이 임명하는 5명의 收拾對
策委員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再
整備했지만 다시 波動 1965년에는
또다시 大韓發明協會(會長 趙瓊奎)
로 改稱이 뒤바뀌어 27년간 波亂
의 歷程을 밟아오다가 1974年 5月
15日 運營難으로 해서 解散하기에
이르렀다.

不安定의 連續線을 걸어온 發明
獎勵事業은 1947年 朝鮮發明獎勵會
理事長 吳楨洙이래, 1956年 韓國發
明協會長 周利會, 1959年 金浩植,
1960年 周利會, 1960年 安亞洲,
1960年 朴勝男, 1961年 李英雨, 19
62年 朴基元, 1963年 大韓發明協會
長 趙瓊奎, 1967年 金泰煥, 1969年
朴魯陽, 1971年 金義昌, 1972年 播
明植, 1973年 申東寬의 變遷을 體
驗케 했다. (8)

이전의 發明獎勵

高麗發明協會로 시작해

農村振興運動, 迷信打破運動, 禁酒
運動, 文盲退治運動, 發明獎勵運動
등으로 번져갈수록엔 단길은 몹시
어려웠다.

그러나 發明獎勵事業도 社內的인
技術的能力和 보다 넓고 깊은 組織
的活動을 뜻해보려든 財政的 批判
의 幼弱性으로 해서 결국 會員들을
상대로 하는 特許手續의 代理業務
에 주력하면서 1933年 6月 10日 4·
6倍版 31面의 「科學朝鮮」이란 月刊
雜誌를 처음 發刊하면서 명맥을 이
어갔다.

發明學會의 獎勵事業은 2次的인
結果로 뛰어난 會員들을 對상대로
하는 特許手續을 위주로 하는 길목
으로 들어서 갖가지 문제점과 부작
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發明獎勵事業은 朝鮮總督府에서
도 착상하고 있었다. 1924年 7月
10日 그들의 商工課가 발표한 發明
獎勵事業의 構想은 發明學會活動을
가로 질러가는 구실을 했으며 本軌

일본사람, 20%는 朝鮮사람인데다
가 相談內容의 60%가 機械類, 40%
가 化學製造方法이며 대개는 한두
차례 特許出願을 경험해 보았거나
拒絕당한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아
니면 공색한 發明家, 虛構性이 짙
은 發明內容이 그 大多數였다는 것
이다.

이들을 行政機關에서 처리해 나
가기에 불가능함을 깨달은 그들은
결국 日本에서 터전을 닦아온 帝國
發明協會를 본따 보자는데 있었다.

이렇게 해서 發明獎勵補助金, 見
本試作費, 優秀發明의 表彰, 講演會,
展示會開催등을 내걸고 규모있는
朝鮮發明 및 獎勵展示會와 兒童生
徒創案品 展示會를 열어 관심을 끌
었다.

發明學會가 機關誌 科學朝鮮을
통해 發明意識을 啓蒙하면서 이끌
어 오던 特殊雜誌는 創刊 1年半인
34年 6月 일당 休刊해야만 했고
1935年 2月 姊妹機關인 朝鮮科學知